

월간 내일

June 2025
Vol.601



바둑기사 신진서

CONTENTS

이성이 닿기 전 진실 가까이, 직관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일하는 감각, 당신은 직관형인가? 분석형인가?

10

일잘러를 만나다

사람이 중심되는 회사, 육아는 복지 아닌 문화
(주)토마스

16

내일 인터뷰

기초가 튼튼해야 계단을 오른다
'직관의 승부사' 신진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청년카페에서 취업고민 덜어봐요

24

굿 파트너

소통'通'하니 좋지 아니한가!
창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28

체인지업! MOEL

제7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의 현황리에 마쳐

32

함께 하는 MOEL

떡으로 만든 꽃한송이로 전하는 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유현미 씨

36

내일 로그

생성형 AI 결과물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38

어땠을까

미래의 '미키'가 전하는
오늘의 노동 이야기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40

MOEL 뉴스

44

아보하 스포트

도심 속, 초록을 거닐다
국립세종수목원

48

내일 톨

• Trust your Gut
• 생각도 가지치기

50

취향시대

향수와 개성의 향기로운 만남
취향에 맞는 향수 찾기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NO, NO!
회식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말

54

내일 모의고사

June 2025 Vol. 601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생각보다 앞서는 판단, 직관이라는 지혜

직장에서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우리를 움직이는 건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입니다. 직관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통찰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해 나타나는 판단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블링크(Blink)>에서 이를
'첫 2초의 판단'이라 부르며, 때로는 긴 분석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업무에서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거나 회의 중 핵심을 단번에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직관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상대성이론의 아이디어가 먼저
직감으로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직관은 이성이 닿기 전에
진실에 가까워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선입견이나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리와 조화를 이룰 때,
직관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고 유연한
결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직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과 성찰 속에서 길러지는 지적 자산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직관이라는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정답에 가까이 다가서 있으니까요.

일하는 감각, 당신은 직관형인가? 분석형인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사람마다 직관과 이성 중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당신은 어떤 방식에 더 의존하는지 알아보자.

글 편집실

Q1.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당신은...

- ☐ 말투, 표정, 분위기로 성향을 파악한다 **3점**
- ☐ 말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어본다 **2점**
- ☐ 상대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까진 판단하지 않는다 **1점**

Q3.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 ☐ 일단 감으로 해결책부터 떠올려본다 **3점**
- ☐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비교해본다 **2점**
- ☐ 직전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본다 **1점**

Q2. 보고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 ☐ 전체 틀을 대강 잡고 내용은 채워가며 생각한다 **3점**
- ☐ 자료부터 꼼꼼히 수집하고 시작한다 **2점**
- ☐ 머릿속 그림을 스케치하듯 먼저 구상한다 **1점**

Q4. 회의 중, 갑자기 드는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 ☐ 바로 말하거나 움직인다 **3점**
- ☐ 느낌은 있지만,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2점**
- ☐ 느낌보다는 팩트를 우선시한다 **1점**

결과 보기

10~12점 직관력 만렙!

빠르게 본질을 캐치하고 감으로 방향을 잡는 당신. 회의 5분 만에 흐름을 읽는 타입

7~9점 직관과 분석 사이, 균형형

감도 있지만 검증도 중요한 당신. 직관을 쓰되, 근거도 챙기는 똑똑한 타입

4~6점 분석형 사고 우선!

감보다는 근거와 데이터가 먼저! 신중한 판단력으로 정밀하게 접근하는 타입

나의 직관력이 딱 들어맞는 순간은 [] 때이다!

나의 직관력이 딱 들어맞는 순간은 [차이를 구별할] 때입니다. 데이터 리포트를 정리하다가 전환율이 평소보다 살짝 낮은 게 눈에 띄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넘기기 아쉬워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알고 보니 한 페이지 링크가 오류로 연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클릭은 되는데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니까 전환이 안 된 거죠. 그때 '아, 이런 게 직관이구나' 싶었어요. 수치는 평범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 하나로 문제를 찾았으니까요.

대전시 유성구
김명희 씨

나의 직관력이 딱 들어맞는 순간은 [메모를 확인할] 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지니면, 좋아요! 일, 사색, 독서 등 무엇이든 집중하는 과정에서 반짝반짝한 생각들이 들면 그것을 적어두어요. 이후 메모를 확인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노력해서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 집니다. 아이디어나 반짝이는 제안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최영수 씨

나의 직관력이 딱 들어맞는 순간은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읽었을] 때입니다. 회의 중에 클라이언트가 설명은 듣고 있었지만, 자꾸 눈을 돌리고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 사람, 뭔가 불만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근을 바꿔서 다른 제안을 꺼냈죠. 그랬더니 표정이 확 풀리더라고요.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느껴졌어요. 마케팅이나 영업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로직으로만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종시 어진동
진성 씨



7월호에서 함께 생각해 볼 일의 감각은 작은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 면밀히 판단하는 태도, '신중함'입니다.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더욱 필요한 능력인 신중함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QR을 스캔해 설문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으세요.

사람이 중심되는 회사, 육아는 복지 아닌 문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토마스

산업용 네트워크 통신과 공장자동화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토마스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사람 중심의 조직'을 지향한다. 현재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인 성호준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일터의 기본을 '신뢰'와 '자율', 그리고 '가족을 위한 배려'로 새롭게 정의해왔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일도, 육아도, 눈치 보지 않고

(주)토마스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이례적일 만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 체계를 갖춘 기업이다. 그 핵심은 출산과 육아가 퇴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 제도를 철저히 보장할 뿐 아니라, 그 활용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사에게 구두로만 의사 표현을 해도 다음 날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나 복잡한 절차 절차 없이 곧바로 제도가 실행되는 이 ‘실행의 속도’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의 진짜 신뢰도를 느끼게 하는 요소다. 출산축하금과 선물은 기본이다. 출산 후 휴가

사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자의 공백은 조직의 누적 업무 경험을 고려해 팀 단위로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구조다. 누가 휴직을 들어가면,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역할을 조정하고 기존 구성원들이 단기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복귀 이후 조직의 응집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사내 키즈룸은 어린이집 휴원이나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처럼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정식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용한 놀이공간과 간이침대, 학습 도구 등을 갖춰 두고,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 아이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이는 특히 “애매한 상황에서 실 수는 없고, 아이는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에게 현실

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회사 명의로 축하편지와 입학 선물이 전달된다. 가족 초청 워크숍, 가족 동반 여행, 명절 선물, 경조사 지원까지 ‘가족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복지의 걸치레가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유자녀 직원 비율은 89%, 육아휴직 복직률은 100%라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를 낳는다고 경력이 끊기지 않고, 육아를 한다고 승진이 멈추지 않으며, 아이의 아픔 앞에서도 회사에서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이 조직에는 존재한다는 뜻이다.

일은 유연하게. 성과는 정직하게

육아 친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유연해야 한다. (주)토마스는 2020년부터 시차출퇴근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하며, 오전 8시 30분~9시 30분 사이 자율 출근이 가능하고, 출퇴근지를 집·현장 등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대표를 제외한 전 직원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변경도 자유롭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돼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연 1회



MINI INTERVIEW



성호준 대표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대한 제도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진짜 성과로 돌아온다는 걸 저희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회사, 출근이 두렵지 않은 조직,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혜진 과장

“남편은 직업군인이고, 친정과 시댁도 멀어서 육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때는 회사 키즈룸에 함께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노트북을 지원해 주셨고, 아이는 옆에서 놀고 저는 업무를 보조.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봐주며 함께 배려해줘요. 워크숍 등 외부 일정에도 아이와 동행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육아하며 일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회사의 배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키즈룸 단골이 됐어요(하하)”

원하는 날짜에 2시간 조기퇴근하는 제도로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초과근로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보상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 반반차(2시간 단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념일과 명절 전날에는 조기퇴근제를 적용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매년 12월 31일은 전 직원에게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1시간, 연차휴가 사용률은 9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른다.

신뢰 기반 리더십, 회의하는 조직

성 대표는 위계보다는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실천한다. 회의 자리에서 “대표가 말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실제로 직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도 조직문화의 일부다. 보고와 결재도 형식보



다 효율을 따진다. 대부분의 실무 보고는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되며, 승인이나 기록은 간단한 엑셀 관리로 충분하다. 공식적인 전사 회의는 월 1회, 나머지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규모로 진행된다. 승진 체계 또한 수직적이지 않다. 연말이 되면 각 직원이 스스로 희망 직급을 신청하는 파격적인 진급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연봉과는 무관하다. 상호 신뢰와 공동체 감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기 부여와 주도성을 높이는 장치다.

"문화는 실력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성 대표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일본 미라이공업, 브라질 세코 등 전 세계 기업의 문화를 벤치마킹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경영 실험”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생활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저 스스로 회사에 오는 게 즐겁지 않으면 직원들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좋아야, 우리가 좋아지죠.”

그의 철학은 자매 법인인 토마스 케이블에도 전파되었고, 해당 법인 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성장했다. 가족 초청 워크숍, 연말 여행, 힐링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의 핵심 가치인 ‘사람’과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성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육아는 개인의 책임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직원이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면, 회사도 같이 성장합니다. 이건 가능하고,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그의 경영 방식은 복지의 틀을 넘어, 직원 개개인의 삶을 지지하는 일상 속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계단을 오른다 '직관의 승부사' 신진서

“답은 네 스스로 찾아라.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바둑이다.”
영화 <승부>의 이 한마디는 바둑이라는 고전 게임이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경우의 수 속에서 단 한 수를 직관적으로 두는 바둑은 산업 현장과도 닮은 점이 많다.
바둑판 위의 승부처럼, 삶과 일터에서도 ‘기초’와 ‘직관’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다.

글·사진 엄민용 MHN스포츠 편집국장

바둑, 답 없는 질문을 마주하는 게임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승부>는 한국이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둑’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가로·세로 19줄이 만드는 361개 교차점에 흑돌과 백돌을 놓아 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로 승패를 겨루는 바둑은 흔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게임’이라고 말한다. 상대의 돌을 많이 잡거나 자신의 영역을 넓힌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 방식 때문에 ‘인류 최고의 전략 게임’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이들 표현보다 더 널리 통하는 말이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실제로 한 판의 바둑을 승리하려면 ‘포석’을 잘 짜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자충수’와 ‘무리수’로 위기를 맞지만, ‘묘수’로 기사회생하기도 한다. ‘꿈수’가 횡재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꿈수를 부리다 망한다. 이렇듯 바둑을 두는 과정은 우리의 삶과 꽤 닮았다.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둑이다’라는 표현에서 바둑을 ‘인생’으로 바

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다 보니 ‘포석’이나 ‘묘수’뿐 아니라 ‘정석’ ‘패착’ ‘초읽기’ ‘끝내기’ 등 술한 바둑 용어가 생활언어로도 쓰인다.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란 점에서 바둑으로 근로 현장의 여러 상황을 비유할 수도 있다.

바둑판의 얘기는 곧 산업 현장의 얘기

영화 <승부>에는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는 성취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대사도 나온다. 이 표현 역시 근로 현장의 숙련공들에게 적용해도 썩 어울린다.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벗어나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대사도 업무 현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줄 만한 조언으로 부족함이 없다. 현재 바둑 세계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진서의 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프로기사들의 수(手)는 비슷하다. 승부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판가름난다. 상대를 반드시 넘어서겠



다는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의 말에서 ‘프로기사’를 ‘기업’이나 ‘기술자’로, ‘승부’를 ‘성공’으로 바꿔 읽으면 바둑판의 얘기는 곧 산업 현장의 얘기가 된다. 실제로 신진서는 바둑계와 인공지능(AI)의 관계가 산업 현장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류를 향한 AI의 급습’을 피부로 실감케 한 사건 중 하나가 인류 대표 이세돌과 바둑 AI 알파고와의 대결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소보다 많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창조력을 지닌 인간의 두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공부'가 필수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뇌로만 그 깊은 수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세계 1인자로 불리던 이세돌은 알파고에게 1승 4패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인류 최고의 바둑 기사가 AI와의 대결에서 완패하자 ‘이제 바둑계는 끝났다’는 소리가 바둑계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이후 바둑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바둑의 수법은 더욱 깊어졌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전통적 바둑 강국에서는 바둑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그동안 불모지에 가깝던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바둑 동호인이 생겨났다. 바둑 대회도 더 많아졌다.

변화, 나를 발전시키는 묘수

신진서도 처음에는 AI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고 한다. 기계가 인간의 미세하고 미묘한 감각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둑에는 ‘두터움’이나 ‘승부 호흡’ 같은, 어떤 수치로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 AI의 기계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신진서는 얘기했다. 그러나 이제 신진서는 “AI는 나를 더욱 채찍질하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AI 때문에 바둑이 더 재미있어졌다”고도 전한다. ‘AI와 대결하는 대신 AI의 장점을 찾는 것’이 그의 인식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AI가 추천하는 수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나의 상상과 계산을 더해 나만의 수를 찾아 발전시키려 한다”는 게 신진서의 AI 활용법이다.

신진서는 바둑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AI가 인간의 일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돕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할 가

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고 얘기한다. 물론 자신이 노동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진서는 “바둑계에서 오랫동안 ‘상대가 깜짝 놀라 귀가 벌겍게 될 만큼 기막히게 좋은 수’라는 의미에서 ‘이적(耳赤)의 수’로 불리던 과거의 묘수들 중에 AI가 등장한 이후 ‘별무신통(別無神通)한 수’로 평가받는 게 적지 않다”며 “그런 수로는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정확한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내려오는 관행들은 이제 AI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바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신진서는 지적했다. 이는 AI가 물고온 재앙이 아니라 AI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

직관력은 훈련의 산물

신진서는 바둑판에서의 대결과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가 지닌 공통점으로 ‘직관’의 중요성을 꼽기도 했다. 바둑은 수많은 정석(바둑에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이라고 인정받은 수법)과 기보(바둑을 둔 내용의 기록)를 외우고 있어야 유리하기에 얼핏 ‘기억력의 싸움’으로 보일 만하다. ‘바둑을 배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둑은 ‘지금까지 전 인류가 둔 바둑 중에서 똑같은 판은 없다’고 단정 지을 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데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경기다. 게다가 ‘빠름’을 추구하는 현대 흐름에 밀려 바둑 한 수 한 수를 두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 두어진 수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고 이리저리 계산할 시간이 없다. 그랬다가는 ‘시간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



에 한 판의 바둑을 두면서 상당 부분을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신진서는 말한다. 분석이나 추리를 할 시간이 절대 부족해 바둑돌들이 얹힌 모양이나 상대의 자세 등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착점을 한다는 것이다.

신진서는 이런 직관력을 키우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꼽았다. 대국이 없는 날에도 남들의 기보를 분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등을 반복해 머릿속에 그려 본다는 것이다. 감각은 타고나지만,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특히 신진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학습 등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장인들도 대부분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숙련된 유경험자일 뿐이다. 근로 현장에서의 직관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앞선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끊임 없이 그려 보는 노력이 있어야 직관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신진서의 조언이다.

청년카페에서 취업고민 덜어봐요

전국 88개 청년카페, 청년들의 일과 삶을 잇는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카페가 올해 전국 88개소로 확대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63개소에서 시작해 짧은 시간 내 지역 기반의 청년 지원 거점으로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동네에 생긴 '작은 변화', 청년을 위한 공공 플랫폼

청년카페는 커피를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 진로상담, 퍼스널 브랜딩, 스터디룸 제공, 정책 안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15~34세(일부 지역은 35세 이상도 가능)의 미취업 청년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 주요 도시에 청년카페를 설치해 '구직의욕 UP', '취업스킬 UP', '로컬레벨 UP'과 같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성장을 돕고 있다.

수치로 입증된 만족도, 지역별 확산 기대

2024년 한 해 동안 4만 6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94.1%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년카페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부모 대상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청년과 그 가족이 함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는 청년의 진로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취업 지원' 넘어, 청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자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이름처럼 청년 개인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카페라는 익숙한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진로 탐색과 실력 배양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딱딱한 정부 프로그램이 아닌 친근한 성장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운영 모델을 확산시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일을 더 가까이에서 응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카페란?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카페처럼 언제나 편하게 오세요!
청년의 성장과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 조례 등 정한 경우 35세 이상 청년도 참여 가능)

카페 주요 메뉴

인프라 제공 (무료)	▶ 일상 및 구직 의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 공간 지원 자유롭게 공부, 회의, 독서,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돼요!
프로그램 제공 (무료)	▶ 1:1 초기상담을 통해 일상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 일상지원,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부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후속 지원 (무료)	▶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하고 참여자의 취업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나에게 필요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카페 스페셜 메뉴

1 퍼스널 컬러 받아봤어요?	구직활동 지원 퍼스널 컬러를 통한 면접 스타일링, 나만의 스토리로 준비하는 면접 스피치, 면접 사진,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2 일잘러가 되고 싶나요?	실무교육 스피치 기술, 생성형 AI 툴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함께 배워요!
3 몸도 마음도 함께 챙겨주세요!	일상지원 청년 마음건강 교육 및 스트레스 검사, 기초금융 교육을 통해 100세 인생 계획 세우기 등 일상 속 균형감을 얻어주세요!
4 친구랑 같이 해도 재미있어요!	네트워킹 취업스터디로 뭉치는 지역친구 만들기, 멘토링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매너 등 각종 네트워크를 지원해요!

※ 세부 프로그램은 카페마다 달라요.

청년카페 이용법 tip!

- ☑ 자유롭게 프로그램 선택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 카페처럼 자유롭게 오면 돼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1:1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 ☑ 친구랑 같이 해도 좋아요!
혼자가 쑥스럽다면 친구랑 같이 오세요!
언제든 열려있는 곳입니다.
- ☑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스터디나 학업 등 잠시 머무를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곳은 청년이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해요!
- ☑ 나에게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1:1로 안내해드려요!
일상 속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거나 취업이 힘든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여방법
지역별 청년카페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고용24'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소통'通'하니 좋지 아니한가!

사람의 몸은 75조 개 이상의 세포와 수많은 기관계로 구성된다. 각각은 독립적이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로 하나의 팀처럼 작동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독립된 인격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정교한 소통과 조화로운 교류를 통해 가능해진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가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 김혜영 사진 김근호

경남 대표,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이하 '창원지청')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으로, 창원시 내 경상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관할구역(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지청으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중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한 지역협력과는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협력팀, 사업체 근로자 현황 및 실태조사·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시장분석팀, 외국인 취업을 위한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외국인력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 팀이다.

지역협력과 양철수 과장 "이들테면 노동시장분석팀에서 제공한 고용동향 분석자료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협력팀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일 자리를 창출하면, 외국인력팀에서 내국인력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외국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치 잘 맞는 톱니바퀴처

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청 지역협력과가 업무에서는 '협력'의 중심에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분리'되어 있다. 창원지청사도 고용센터가 있는 건물도 아닌 위치의 별관에 자리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역협력팀과 노동시장분석팀만 함께 하고 있고, 외국인력팀은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빌딩에 상주해 따로 떨어져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부 소통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지역협력팀 박태경 팀장 "우리과는 정기회의 시간 시작 전 가지는 티타임으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공간이 떨어져 있고, 업무적으로 출장이 잦아 얼굴을 자주 맞대지는 못하지만 회의 시간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눠 마십니다. 업무의 진행상황, 새로운 정보들,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4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창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협력과 소통의 힘으로 '2024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안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및 고용행정 발전에 기여한 센터(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올해의 고용서비스'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창원

지청 지역협력과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경상남도가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공로 등이 인정되며 지난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했다.

지역협력과 양철수 과장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 개최되는데 2024년도엔 경상남도가 종합대상을 받았고 김해시가 우수상을, 창원시와 사천시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국비 178.2억원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으며, 근로자 16,124명을 지원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모여 좋은 상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원지청 지역협력과가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다. 창원의 기계제조, 거제의 조선, 사천의 항공, 김해의 바이오, 양산의 자동차부품, 밀양의 나노 등 지역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협력팀 박대경 팀장 "경남도 내 18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모두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노동집약적이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항공업, 업종별상생협약지원에 따른 자동차부품업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선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3대 주력사업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며 효과가 극대화됐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업재직자희망공제를 NH농협과 협약해 전용상품으로 개발, 전국 최대 규모인 10,895명에 2

년간 지원하며 경력자 이탈방지와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항공산업의 경우는 2023년부터 항공산업 상생협의체(고용부-경남도-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유관기관)를 구성, 전국 최초 자치단체 주도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업은 현대기아차의 2·3차 중소 협력 3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2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지역상생의 목표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최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가공모 소식이 있었다. 창원지청 지역협력과는 일찌감치 경상남도청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발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국비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자체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그간 쌓아온 상호간의 신뢰와 검증된 성과가 있기에 주저 없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러한 도전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협력팀뿐만 아니라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모든 팀들도 앞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외국인력팀 최호정 팀장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차산업에까지 외국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채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합법적인 채용시스템 운영, 노사 간의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분석팀 이남선 팀장 "통계에 필요한 조사과정에서 기업체의 협조가 가장 절실함

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었을 때 효율적인 정책 반영과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팀 조사관들의 요청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일의 미래를 잇다"

제7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의 성황리에 마쳐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제7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했다. 11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으며, 한국이 제안한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 신설도 합의됐다. APEC 회원 경제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 노동시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의 장

11년 만의 재개. 아·태 노동정책 논의의 장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서울 회의 이후 28년 만의 유적이다.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Sustainable Labour Market and Jobs for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APEC 20개국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격차 해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회원국 간 정책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인

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 모든 회원 경제체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본 회의에서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APEC Sustainable Jobs Forum)' 신설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전원이 합의했다. 이 포럼은 고용노동 정책 교류의 연속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으로, 2026년 서울에서 첫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 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자회담 통해 국가별 협력 논의 확대

김민석 수석대표는 회의 기간 중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11일에는 피파트 라차키프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인재 양성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는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3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필리핀과의 회담에서는 카멜라 토레스(Camella Torres) 노동고용부 차관이 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AI 기반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방안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포용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12일에는 조안 모(Joan Moh) 싱가포르 인력부 및 지속가능환경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번 일련의 양자회담은 정책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회의 종료 후 진행된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세이지 다나카(Seiji Tanaka) 일본 후생노동성 차관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일 청년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AI·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현장 체험으로 주목

회의장 내 부대행사로 마련된 '고용노동 디지털 서비스 홍보 부스'에서는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은 디지털 고용서비스와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며
APEC 회의에서 정책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디지털 전환 사례가 전시됐다. 대표단들은 '모바일 고용24'를 직접 체험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인했고, AI 기반 면접기, VR 직업훈련 콘텐츠, 산업안전 교육 장비 등도 큰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카카오, HD현대마린솔루션, 호텔 HDC 등 민간기업도 참여해 중장년 재취업, 직업훈련 우수사례 등 정부-기업 간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고용서비스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실질적인 현장 적용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자 협력 외교의 장, 정책 수출국으로 도약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노하우를 APEC 회원국과 공유하며, '정책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특히 자국 중심의 양자 외교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자주의 기반의 상생 외교 모델을 실현하고 국제 고용노동 분야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고용정책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떡으로 만든 꽃한송이로 전하는 마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꽃다운 세상을 만드는 유현미 씨



육아로 경력을 내려놓았던 세 아이의 엄마 유현미 씨는 다시 한 번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떡케이크 과정을 수강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나'의 시간을 되찾았다. 배움은 곧 창업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손끝에서 정성과 예술이 깃든 떡케이크가 태어났다. 이제 그녀는 이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피워가고 있다.

글 차유미 사진 김경수

경단녀에서 창업가로, 다시 피워낸 이름

“다시 제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

유현미 씨는 자동차 전장회사와 선박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남편의 유학을 계기로 퇴사했고, 세 자녀와 함께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매일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일상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유학길에 오른 남편의 후배들, 현지에 적응하지 못한 유학생들을 위해 그녀는 밥을 짓고,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었다.

“유학생들 중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서로 도우며 같이 식사를 나누었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생겼죠. 밥이 사람을 붙잡고, 이어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8년의 유학 생활을 마친 후 돌아온 한국. 오랜 경력의 공백, 변화한 환경, 나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선택한 건 '양금플라워 떡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과정이었다. 손에 익은 '부엌일'이 기술로 연결되던 순간이었다.

“그게 내 손에 익은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확신으로 빛은 기술, 그리고 꽃 위에 얹은 사명

현미 씨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2개월간 과정을 빠짐없이 수료했다. 수업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유인물에 주석을 달고, 실전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 반복 학습을 이어갔다.





“수업에서 받은 유인물, 선생님이 흘려 말한 팁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리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뭔가를 놓칠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죠.”

여기에 그는 SNS 활용 교육까지 병행했다. ‘시크릿 인스타그램 과정’을 통해 떡케이크를 알리는 전략, 해시태그 활용, 고객과의 소통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온종일 떡을 만들고, 밤에는 마케팅 강의를 들었죠. 체계적으로 배운 덕분에 지금은 제 작업을 꾸준히 알릴 수 있어요.”

그녀의 물입은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대한민국 월드 푸드 챔피언십’ 전시경연 부문 금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우수상, 2024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전시경연

금상, 농촌진흥청장 최우수상 수상 등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입상한 그녀는, 그간의 집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처음부터 창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집중도 자체가 달랐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현재 현미 씨는 김포 고촌 지역을 중심으로 예약 픽업 방식으로 꽃떡을 판매하고 있다. SNS와 지역 맘카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단골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꽃떡이 만든 연결, 공동체를 위한 시간

떡 위에 올린 양금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하는 도구이자,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마음이다. 유현미 씨는 배운 기

술을 공동체와 나누는 데 주저함이 없다. 장애인 복지관, 자폐·지적장애인 시설 등에서 떡케이크 수업을 열며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빛는 기쁨을 전하고 있다.

한 수강생은 수업이 끝난 후 현미 씨에게 동화책 <좋은 날엔 꽃떡>을 선물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빚어 위로와 축하를 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선생님이 꼭 그 주인공 같아요.”라는 그 말은 지금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다.

“고작 떡 하나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축하가 되는, 하루를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유학 시절 공동체의 ‘밥을 짓는 언니’였던 그는, 이제는 마을을 잇는 ‘떡을 빚는 이웃’이 되었다.

삶을 바꾼 건 작은 용기 하나였다

창업 초기, 그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첫 홍보를 시작했지만,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 포털 사이트에 처음 등록한 날, 실 새 없이 걸려오는 광고 전화에 지쳐 거칠게 대응했는데, 알고 보니 한 통은 실제 고객의 주문 전화였다.

“그분 덕분에 정신이 반짝 들었죠. 지금은 그분 가족 전체가 단골이에요.”

현미 씨는 이후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SNS에 솔직하게 공유했고, 그 진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아이들도 엄마의 일에 응원을 보낸다.

“엄마가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기꺼이 기다려줘요.”

요즘 그는 여름 비수기를 대비해 제과 상품을 개발 중이다. 동시에 기존 소상공인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전문 강의가 제도적으

로 마련되길 바란다.

“중·고급자 또는 스킬업 같은 고급 강의가 국민 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기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면 그건 기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몰랐다면, 지금 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도움을 잘 찾아보고, 주저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니까요.”

유현미 씨는 오늘도 떡을 빚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꽃 한 송이를 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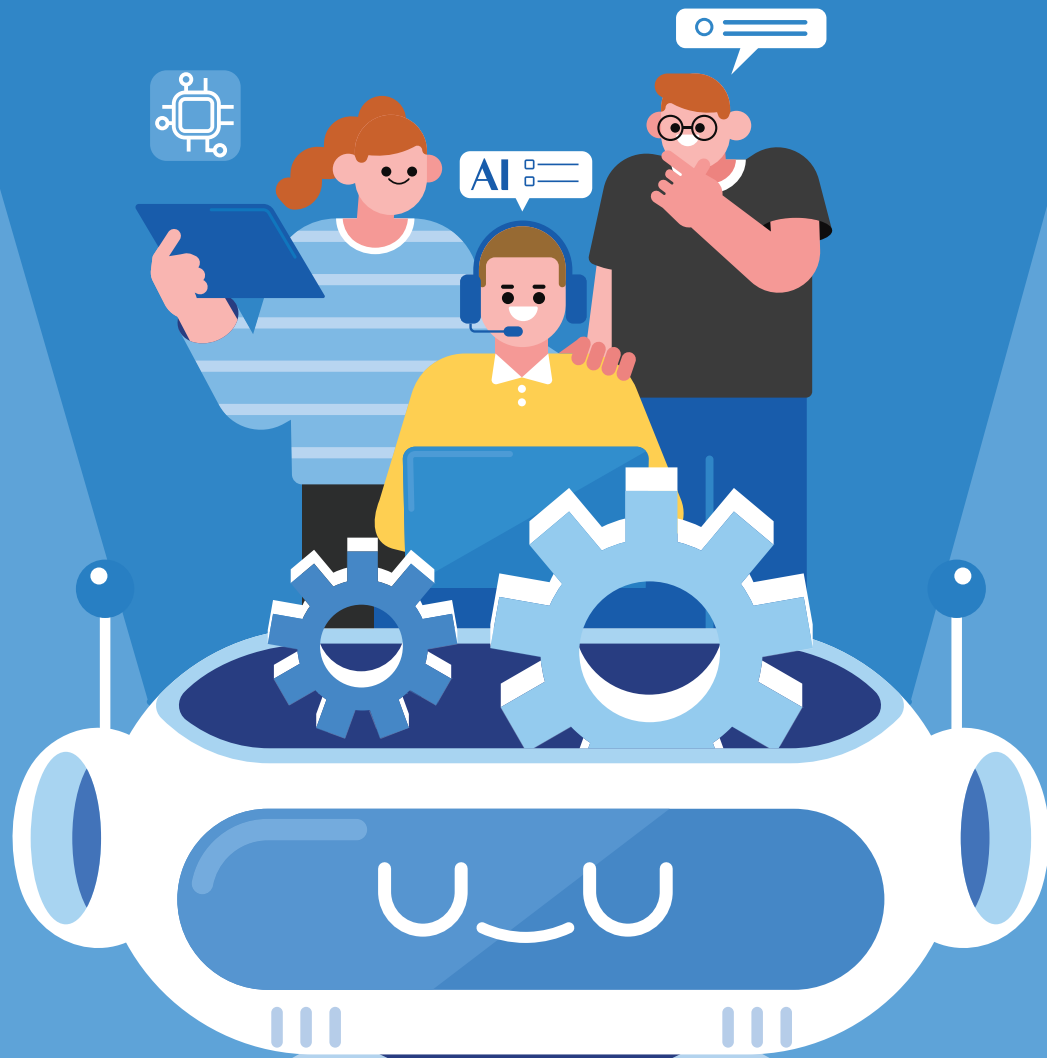


생성형 AI 결과물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신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글 강진우



생성형 AI 성능 극대화의 주역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맞춰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는 '콘텐츠 제작의 주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물의 완성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지시를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AI 시대'의 새로운 직업이다.

생성형 AI 사용자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즉 자연어를 활용해 생성형 AI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이 메시지를 '프롬프트(Prompt)'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프롬프트의 논리 구조와 맥락, 명확한 지시어, 결과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입력함으로써 생성형 AI의 성능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일은 언뜻 생각하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만들었는데, 앨런은 80시간에 걸쳐 900여 개의 세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한 끝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일화다.

공학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인문학적 소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은 대중에게 생성형 AI의 위력을 알린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왕도는 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공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느 AI 분야와 달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인문학적 소양이 한층 강조되는 직업이다.

프롬프트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따라서 한국어·영어 등을 능숙하고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된 단어 내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문학적 통찰력이 요구되며, 프롬프트의 논리 구조를 더욱 치밀하게 만들기 위한 철학적 사고도 필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대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에단 몰릭 교수가 자신의 SNS에 '앞으로는 분명 인문학 전공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물론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공학·인공지능학 등 생성형 AI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더욱 좋다. 아울러 최근 속속 개설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수강하고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생성형 AI 활용성을 고도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미키'가 전하는 오늘의 노동 이야기

영화 <미키17>을 통해
되돌아보는 노동정책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미키17>은 미래 우주 식민지를 배경으로 복제 인간 '미키'가 반복되는 임무에 투입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도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글 편집실 자료출처 TheMovieDB.org 미키17 공식 포스터

<미키17>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

영화에서 미키는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며, 죽을 경우 새롭게 복제된 자신이 그 일을 이어받는다. 이러한 설정은 일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위험 업무와 노동 환경을 연상시킨다. 특히 고위험 작업이 하청업체나 단기 고용자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의가 된 바 있다. 많은 기업과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기업의 책임과 예방 조치에 대한 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영화 속 미키는 법적 권리나 보호 없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노동 현실을 성찰하게 한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최근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상기후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대응 지침을 포함한 보건조치 의무화는 노동자 건강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키17>은 단순히 복제 인간과 미래 기술을 다룬 SF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 생명, 그리고 권리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미키'가 반복적으로 임무에 투입되며 겪는 갈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노동의 가치와 구조적 변화의 방향을 돌아보게 만든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일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영화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미키에게 알려주는 고용노동 정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용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적용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직,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등도 단계적으로 포함

②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

내용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

목적 기업이 예방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단순한 '사고'가 아닌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

③ 고용보험 확대 정책

내용 기존에는 정규직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예술인·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까지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

지원 내용 실업급여, 직업훈련,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 포함

④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내용 비정규직, 이직자, 경력단절자 등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방식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등



01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발표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02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증액 편성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물 피해에 따른 기업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포함한 총 814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일 까지, 수당의 1/2에서 2/3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물 피해에 따른 기업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포함한 총 814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일 까지, 수당의 1/2에서 2/3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03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중장년 재취업 훈련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 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올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경쟁률 2.6:1, 50대 이상 참여 비율 77.4%를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번 확대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조치로, 단기간 집중과정(1~2개월), 야간·주말 과정 등 다양한 훈련 형태가 신설된다. 또한, 훈련 수료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일경험과 수당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취업을 돕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 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올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경쟁률 2.6:1, 50대 이상 참여 비율 77.4%를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번 확대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조치로, 단기간 집중과정(1~2개월), 야간·주말 과정 등 다양한 훈련 형태가 신설된다. 또한, 훈련 수료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일경험과 수당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취업을 돕는다.

04 상습 임금체불에 강제수사 504건, 전년 대비 2.6배 증가



2025년 4월까지 강제수사 실적이 총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구속수사가 집중되었다. 지적장애인과 청년,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극 이뤄졌으며, 대포통장으로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와 상습 체불 편의점 업주 등이 구속됐다. 한편,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5년 4월까지 강제수사 실적이 총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구속수사가 집중되었다. 지적장애인과 청년,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극 이뤄졌으며, 대포통장으로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와 상습 체불 편의점 업주 등이 구속됐다. 한편,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05 고용부·과기정통부, 청년 대상 AI·SW 맞춤형 교육 수강생 모집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부터 청년 대상 디지털(AI·SW)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 만 19~34세 청년의 진로 탐색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포함하며, 심리상담·면접 실습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수도권 과정은 5월 31일까지,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순차 개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부터 청년 대상 디지털(AI·SW)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 만 19~34세 청년의 진로 탐색과 디지털 역량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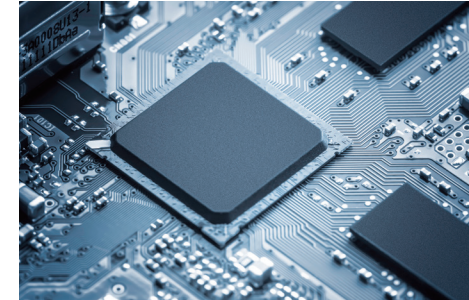
06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 4월에 마련한 「고용노동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재난 시 대응체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매뉴얼은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 큐넷 등 1등급 핵심 시스템의 재난 상황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운영기관의 장애 예방·복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 4월에 마련한 「고용노동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재난 시 대응체계 등 협

07 KOREATECH, 하나마이크론과 손잡고 베트남 현지 직무교육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기업 하나마이크론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총 11개 과정으로, 모두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제공하며 현지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스텝의 온라인 접근성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해 근로자의 기술 역량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측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기업 하나마이크론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

08 20대 건설사와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8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0대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안전투자 우선, 모든 현장의 자율적 안전점검 강화, 운영질한 예방 대책 마련 등 3대 중점사항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전체 감독의 60%를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현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건설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8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0대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안

도심 속, 초록을 거닐다

국립세종수목원

검기 좋은 날씨의 연속이다. 이럴 때 마음껏 걸어볼까.
기왕이면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초록빛 자연 속이 좋겠다.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사방에 있고,
걸을 때마다 반겨주는 꽃들이 있는 그런 곳.
게다가 걷는 내내 흥미를 돋우는 볼거리가 더해진다면?
완벽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곳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수목원

세종은 수도권에서 가까워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시다. 게다가
서울만큼 붐비지도 않아서, 살기도 좋
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에 사는 사
람들에게도, 세종을 오고 가는 사람들
에게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이라
는 수식어를 달고, 2020년에 문을 열
었다.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유전 자

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국가수목
원 확충 계획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
목원에 이은 또 하나의 국립수목원이
다. 국내 최대 사계절전시온실, 한국
전통정원, 청류지원, 생활정원, 분재원
등 다양한 주제 정원에서 식물을 관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문을 연 지 불
과 5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
이 입소문을 타면서 세종의 랜드마크
로 자리 잡았다.





붓꽃을 형상화한 사계절전시온실

워낙 넓어서 어느 곳부터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망설임 없이 사계절전시온실로 가보자. 이곳은 ‘붓꽃’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유리온실인데, 국립세종수목원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열대온실, 지중해온실에서는 열대우림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평소에는 보기 힘든 희귀 식물들을 볼 수 있다. 특별전시온실에서는 시기별로 여러 주제가 열리는데, 가장 최근에는 ‘취라기가는: 식물의 탄생과 진화’가 열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는 식물과 함께한 과거의 일상을 추억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사진공모전 ‘식물하고 나하고’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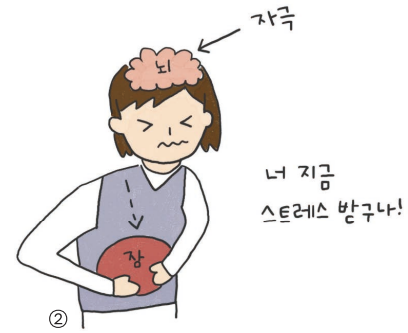


다시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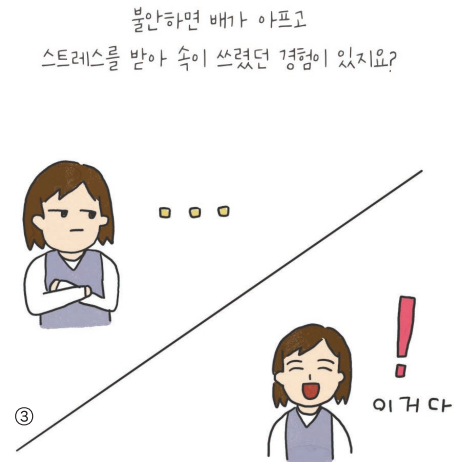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끝났다면, 이제 한국전통정원으로 가볼까. 이 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궁궐정원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권역을 재현해 놓은 궁궐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궁궐정원의 가장 높은 곳 솔찬루에서는 탁 트인 수목원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도 있다. 솔찬루에서 내려오다 보면 자연스레 담장정원에 다다른다. 담장정원에서는 덩굴나무인 으리아속 식물, 클레마티스를 수집해 전시하는 공간이다. 담장과 함께 어우러진 식물 사이로 쉬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담장정원을 지나 자연스레 건다 보면 분재원, 생활정원, 붓꽃원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주제 정원을 지나면 사계절 매력적인 청류지원까지 다다른다. 금강의 물이 유입되는 함양지에서 출발한 물길이 흐르는 덕분에 이국적인 풍경이 느껴진다. 청류지원까지 지나면 국립세종수목원의 대부분은 관람한 것이다. 그럼에도 돌아가기가 아쉽다면, 발길 닿는 대로 다시 걸어보자. 이곳의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는 10월 17일까지 야간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낮과는 또 다른 수목원의 밤이 궁금하다면 방문해 봐도 좋겠다.





뇌와 장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받았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부정적인 신호가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요.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내키지 않았던 경험,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 모두
직관력이 반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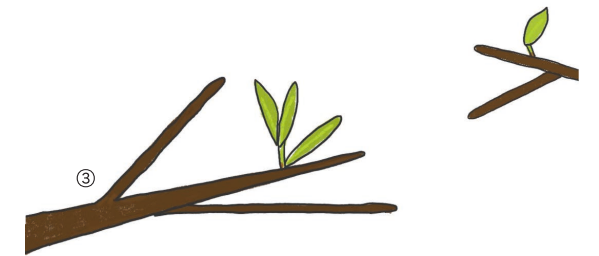


이성적이지 않다고, 근거가 없다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어쩌면 나를 지키는 가장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직관력.
평소에 꾸준히 관찰하는 연습이 도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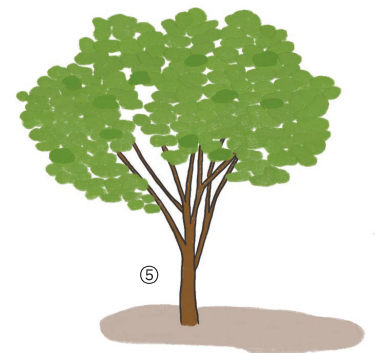
생각도 가지치기



오래된 생각과 의미 없는 생각들을 가지치기 해주어야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난다.



큰 줄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종종 우리의 마음 가지 사이에도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드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향수와 개성의 향기로운 만남

취향에 맞는 향수 찾기

팬더믹으로 실내 활동이 늘면서
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맞물려 맞춤형 향수 제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은 이제 취향을 넘어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 강진우

● 나만의 향기를 창조하다

취향'이 갖는 향수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소수의 취향에 맞춘 프리미엄 향수인 이른바 '니치 향수' 매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문 조향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퍼스널 향수'를 만들려는 이들도 많다. 둘 중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쪽은 후자다. 개성 못지않게 경험을 중시하는 20~30대가 직접 향수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향수를 만들려면 수많은 향료의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그중 잘 어울리는 것들을 뽑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 따라서 퍼스널 향수는 조향사가 운영하는 향수 공방에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명에 '향수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여서 검색하면 의외로 많은 공방이 뜨는데, 조향사 특성, 방문객 리뷰 등을 살펴본 뒤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예약하면 된다.

퍼스널 향수 만들기는 보통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된다. 먼저 정확한 취향 파악을 위해 각 향수 계열, 즉 향조별로 대표적 향을 맡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는 시간이 주어진다. 과일 껍질에서 나는 상큼한 향 '시트러스(Citrus)', 꽃향기 계열인 '플로랄(Floral)', 상쾌한 풀 냄새인 '그린(Green)', 포근한 느낌이 나는 '머스크(Musk)', 방금 꺾은 나뭇가지 향 '우디(Woody)', 시원한 물 느낌이 나는 '마린(Marine)' 등이 대표적 향조다. 이 중 2~3개 향조를 고르면, 해당 계열의 원료 수십 종을 직접 맡아보며 향수의 재료를 선별한다. 일반적으로 5~10개 정도의 원료가 향수에 투입되는데, 조향사의 조언에 따라 배합 비율을 정하고 병에 섞은 뒤 3~7일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면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가 완성된다.

● 퍼스널 향수 만들기 '꿀팁'

전문성 갖춘 향수 공방 찾기

퍼스널 향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향수 공방이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 공방별 조향사의 실력에도 상당한 편차가 생겼다. 홈페이지, 방문객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찾아갈 향수 공방을 골라야 나에게 꼭 맞춘 퍼스널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수 품질을 결정짓는 '부향률'

부향률은 향수에서 향료의 원액이 차지하는 농도를 의미한다. 향수는 부향률 농도에 따라 퍼퓸(15~20%), 오드퍼퓸(7%), 오드투알레트(3%), 오드콜로뉴(1%) 등으로 구분되는데, 당연히 부향률과 향수의 품질은 비례관계다. 따라서 각 공방에서 만드는 향수의 부향률을 미리 문의하기를 권한다.

후각 마비엔 '커피 원두'

제한된 시간 내에 수십 가지 향을 맡다 보면 후각이 지치거나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향을 하는 중간중간 후각을 환기시켜야 하는데, 이럴 땐 커피 원두 향이 제격이다. 향수 공방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소량의 커피 원두를 작은 병에 담아 가져다.

NO, NO! 회식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말

회식(會食)은 직장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임을 뜻한다. 상사, 동료,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술잔을 나누고 소통하는 이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 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왔다. 술기로운 회식을 위해 ‘회식 금지어’를 알아두자.

글 편집실 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MZ세대와 조직문화>, 표준국어대사전 외



동료 간의 유대감 형성, 협업의 윤활제

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평소 업무 중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업무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면모를 알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동료 간 신뢰와 팀워크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조직 문화를 체험하고 선배들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자리로도 기능한다.

그렇다고 해서 회식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회식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결혼은 했니?”, “남자는 술을 좀 마실 줄 알아야지”와 같은 발언은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감수성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때로는 성 고정관념이나 직장 내 위계를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직장 내 세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회식의 의미도 바뀌고 있다. 더 이상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존중해야 하는 자리로 인식된다. 특히 외모나 사생활, 개인 신념에 대한 언급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주제다.

예컨대 “그 나이에 그 직급이면 안 늦었나?”, “나라면 진작에 퇴사했을 거야”와 같은 말은 개인의 노력과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조직 내 위계문화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편한 자발성, 긍정적 에너지가 핵심

많은 기업이 이제 ‘강요 없는 회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점심 회식이나 음주를 배제한 간단한 식사 자리가 선호되며, 회식 여부를 사전에 구성원들과 상의하거나 불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회식 중 금지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부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건강한 언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자, 조직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볼 수 있다.

존중이 회식을 바꾼다.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시대와 구성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쌓는 ‘건강한 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식 자리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존중은 말에서 시작되고, 회식 문화의 품격도 그 언어에서 비롯된다.

금지 발언	이유
한잔 꼭 마셔!	음주 강요는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음
왜 그렇게 조용해? 기분 안 좋아?	억지로 분위기를 강요하면 상대방이 불편함
결혼은 언제 해?	사생활 침해, 민감한 질문
이번 보너스 얼마 받니?	돈, 연봉, 경제적 상황을 묻는 것은 실례
나 때는 말이야...	꼰대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발언
술 못 마시면 인생 재미없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발언, 큰 실례
오늘은 자유야, 솔직하게 다 말해봐	무리하게 진심을 요구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짐
2차, 3차는 필수지!	참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면 문제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6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단답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미취업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커피숍처럼 가볍게 방문해
진로상담부터 실무교육, 네트워킹까지 가능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Hint!

출근 카페

단답형 제출범위. 체인지업! MOEL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고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제주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회의는 무엇일까요?

Hint!

APEC 회의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6월 20일(금)까지

5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신○옥(4987) 이○호(1111) 정○옥(1980) 배○경(8780)

박○영(4987) 이○진(0081) 전○하(3071) 윤○범(0727)

박○옥(4986) 김○영(5296)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웹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